

제주 역사 문화 일반

1. 제주(濟州) 고대사(古代史)의 재인식(再認識)¹⁾

며칠 전 한국상고사학회(韓國上古史學會)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가 제주시 우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는 「상고(上古)시대 제주도(濟州島) 문화의 연구」였다. 주로 고고학적 조사활동을 통하여 도내에서 발굴 출토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연구 보고였다.

1928년에 제주 산지항(山地港)에서 수집된 중국의 화폐 동경 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1984년 이후 도내에서 수집된 고고학 자료들이 보고되었다. 토기를 중심으로 석기 골각기 패총 옹관묘 고인돌 철기 등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비교 연구였다. 이것은 고고학 분야에서 생각한다면 과거에 없던 수확이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라일보』(삼각봉), 1993. 05. 28 (금), 논설위원.

한 계통추구(系統追求) 경계해야

최근에는 또 제주도가 『제주도지(濟州道誌)』(전3권)를 펴냈다. 그 1권은 「제주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사(先史)시대」와 「고대사(古代史)」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선사시대」는 이번에 발표되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고 「고대사」는 삼성(三姓) 개벽신화로부터 시작, 주호인(州胡人), 탐라국(耽羅國)의 성립, 제주도(濟州島)의 고대 명칭, 탐라의 대외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제주도지』는 지난 1982년에 나왔던 『제주도지(濟州道誌)』(전2권)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고, 보다 진일보한 역사의 정리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역사분야뿐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분야에 걸친 집대성이었고 제주도로서는 드물게 보는 출판문화의 공헌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제주도의 고대사(古代史)나 고대문화(古代文化)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급되고 있다. 그런 글들 가운데는 제주도의 고대문화나 역사를 구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제주도의 고대문화나 역사를 어느 한 계통 또는 어느 한 측면에서 추구하려는 경향들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그 같은 주장이나 논리가 통용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제주도에 있어서는 그 같은 발상이나 인식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제주족(原濟州族) 놓고 대립(對立)

제주도(濟州島)의 고대문화나 원제주족(原濟州族)이 어디서 도래하는가를 놓고 과거 학술모임이나 지상 등에서 적잖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거기엔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수많은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북방계통(北方系統)과 남방계통(南方系統)으로 대립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대립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한족(韓族)은 스스로 단일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순수한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족(日本族)도 일본의 어느 총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였다가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더더구나 제주도의 경우는 그 같은 단순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제주도는 고대 때부터 이미 여러 계통에서 여러 종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그들은 표착족(漂着族) 피난족(避難族) 유망족(流亡族) 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착족은 조선술 항해술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시대에는 주로 남방계였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강(楊子江) 이북 중국대륙으로 누선(樓船) 등 항해가 가능한 조선술이 전파된 것은 전국시대 말엽인 기원전 2~3세기 경이었다. 그것이 한반도로 전파된 것은 보다 더 뒤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표착족은 집단을 이룰 수 없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강한 씨족집단이나 종족들에게 쫓겨 도래하였을 피난 집단의 가능성이다. 그 사례의 하나로 아이누족(族)을 볼 수 있다. 원래

한반도 북부지방에 있었던 아이누족이 남하하는 동이족(東夷族, 한족 韓族의 전신)에게 쫓겨 일본(日本)으로 건너갈 때 그들은 제주도에서 큐슈(九州)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슈에 터 잡았던 그들은 야요이(彌生)족(族)의 도래로 혼슈(本州)로 쫓기고 마침내 북해도에 정착,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삼국(三國)이나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전란이나 독재의 혹정을 피하여 탈출한 유망족들의 도래 가능성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그 같은 피난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진(秦)과 한(漢)시대에는 더욱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秦)시대에 서복(徐福)이 이끈 집단 망명사건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서복(徐福)에 관한 연구 성과로 그들이 기원전²⁾ 3세기 경 대선단을 편성, 해외로 망명한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고 있다.

망명(亡命)은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제주도에는 일찍부터 서불(徐市, 서복徐福과 동일인)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설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구명작업을 벌일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한 서복(徐福) 연구의 진전은 서복(徐福) 집단의 제주도래설(濟州渡來說)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검증되고 있다.

진(秦)시대의 망명은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삼한(三韓)의 하나였던 진한(辰韓)에도 진인(秦人)들이 집단으로 망명해와 정착

2) 신문에는 ‘기원’이라고 오기되어 있다. ‘기원전’으로 바로 잡음.

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한(漢)나라 때도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국외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는 제주도까지 도래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백제(百濟)를 비롯하여 삼국(三國)의 유망인(流亡人)들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濟州島)의 고대사(古代史)나 고대문화(古代文化)를 추적하면서 어느 한 분야 한 측면에서 구명을 시도한다든가, 어느 한 계통에서 꼬집어내자는 발상들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원제주족(原濟州族)은 어디까지나 도래족임에 틀림없고 제주도는 위치부터가 동북(東北)아시아의 십자로에 놓여 있는 만큼 실로 여러 계통에서 흘러들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제주문화(濟州文化)와 여러 지역문화 간에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어떤 집단이 주류를 형성하고 문화를 지배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주도(濟州島)의 고대문화(古代文化)를 추구하는 데는 고고학(考古學) · 언어학(言語學) · 인류학(人類學) · 민속학(民俗學) · 해양학(海洋學) 등은 물론 여러 과학이 총동원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아시아 지역에 대한 폭넓은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지금부터야말로 그 같은 연구가 시동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